



# Life for creation

건축가 이정훈 소장의 또 다른 이름은 ‘조호(造好)’이다. ‘정훈’을 프랑스식 발음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짓는 것을 좋아한다’는 또 다른 의미도 지닌다. 제아무리 재능이 있다 해도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 수 없다는 말을 이정훈 소장을 통해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글 김승일 사진 함중현

‘가학 건축가’. 건축가 이정훈 소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다. 익숙하고 검증된 방식보다 새로운 건축방식과 진보적인 디자인을 즐겨 사용하므로 붙여졌다. 실제로 그의 건축물은 누가 봐도 비범하다. 하지만 억지로 끌어낸 디자인이 아닌 대지와 공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꼭 필요한 공법을 적용한다. 덕분에 누가 봐도 매력적인, 그리고 갖고 싶은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이다. 제아무리 창조적인 사람이라 해도 매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정훈 소장은 어떻게 이 같은 일을 훌륭히 해내고 있을까?

이정훈 소장이 건축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은 파리 유학시절이다. 그는 이 기간을 대학시절, 그리고 짧은 실무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비워내는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건축에 대해 이전까지 배웠던 획일적인 시각과 공식, 그리고 연차에 따른 서열은 그곳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 자유로운 시각으로 건축을 바라보고 능력이 최우선시 되는 프랑스 건축의 분위기를 접한 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결국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모두 비워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로 한다. 건축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함은 물론 언어적인 장벽도 해결해야 했기에 그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성실함과 절박함 때문일까? 반 시계루와 자하 하디드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손에 거머쥐었다. 이때 습득한 건축에 대한 시각과 프로젝트 진행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Architect Jeonghoon Lee is also known as an ‘audacious architect’ by his close friends. This nickname has been attached because of his preference in contemporary architectural style and progressive design than the familiar architecture and proven method. In fact, his architecture is extraordinary from anyone’s view. It is not an oddly designed building, but a thorough analysis of the site and space, and applying the right and necessary techniques. Thanks to this, his final project is attractive and desirable. It is not easy to make something new every time even if it is a creative person. However, how does Jeonghoon Lee do such a great job?

Lee opened his eyes to architecture when he was studying in Paris. He expresses this period as a time of emptying the knowledge he gained from college and from short practical experience. The uniform vision, the formula, and the sequence that he had learned about architecture were meaningless there. After observing the architectural without constraint and encountering the atmosphere of French architecture industry where your skill is the highest priority, it was shocking. In the end, he had to break all the stereotypes he had until now and learn new knowledge. He must have to spend more time than anyone else because of the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as well as starting a wholly renewed architecture. Is it due to its sincerity and urgency? He took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Shigeru Ban and Zaha Hadid whom widely regarded to be the most celebrated architect in the world. The architectural perspective and the project system he acquired during this time became the cornerstone of his creative design and work in Korea.



이정훈 소장의 건축물은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외관이 특징이다. 그의 건축물에는 당시의 철학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는 영감을 대지와 사람에게서 받는다고 한다. 대지는 모든 것의 시발점이다. 건축은 대지와 환경에 맞추어 건물을 만드는 일종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건축물을 실제 이용하는 주체이다. 의뢰인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들이 건물에 대해 진정 원하는 바를 읽어내야 한다. 이정훈 소장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항상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균형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요구와 주어진 환경, 합리성과 보편성을 모두 담는다. 건축물을 완성하며 새로운 공법을 시도할 때가 많은데, 이전 프로젝트의 경험을 최대한 참고한다. 앞선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실험적인 공법이 어느 정도 검증되면 이후 작업에서는 주된 요소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이처럼 이정훈 소장의 영감은 결국 건축 그 자체에 있다. 건축을 이루는 모든 요소와 경험에 영감이 되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이정훈 소장만의 건축물을 만들어 낸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틈이 생기면 세계 각지의 건축 명소를 찾아 직접 공간을 확인한다. 최근에는 영국 서쪽에 위치한 세계 최대 식물원, 이든 프로젝트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정훈 소장의 삶은 비워내고 배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건축물 역시 이를 반영해 항상 그 모습과 담고 있는 가치를 시간에 따라 달리한다. 그래서인지 이정훈 소장의 건물을 보면 그가 당시 가장 주목하고 고민하던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최근 주목하는 것은 건물과 주변 환경, 구조와 설비가 생물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이다. 각 부분을 전문가 개별로 진행하는 기존의 작업 방식에서 탈피해 구조는 기능을 고려해 만들고 조경 또한 건축을 설계할 당시부터 통합적으로 구상하려 한다. 이를 위해 환경 조경과 설비 같은 분야도 공부하고 있다.

짓는 것을 소명으로 삼는 건축가 이정훈 소장에게는 완성은 없다. 마치 이상향을 찾아가듯 모든 순간이 과정이다. 지금은 급진적인 시각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정반대로 담백한 건축물을 선보일 수도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각과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He told us that he receives the inspirati on from the site and the people. The land is the starting point of everything. Architecture is a conversation that makes building according to the site and the environment. Human is the subject who actually uses the building. One should always continuously communicate with one’s clients and read their true intention. It is the balance that director Lee would never forget about during the project. Architecture is not the tool you unilaterally express your desire, but it contains both client’s needs, environment, rationality and universality.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try to build a new building using fresh methods, and the experience from our previous project helps us find different techniques. After experimental methods used in the previous projects have been validated to a certain extent, Lee often used as the main factor in his future work. As such, the inspiration of Lee’s architecture is in the building itself. All the archietectural elements and experiences that make up the architecture are his inspirations which allows him to create a piece of his own, that we never seen before. Of course, this is not enough. Whenever he finds his spare time, Lee travels around the world and monitors the space of famous architectural attractions. Recently, he visited the Eden Project, the world’s largest botanical garden in the west of England.

His life is a continuing process of emptying and learning. The architecture also reflects this and always changes its shape and value according to time. So, if you look at the Lee’s design, you can get a glimpse of what he was most concerned about at that time. Today’s architecture is keeping a close eye on the systematically connected space where the buildings, surroundings, structures, and facilities are all blend and joined like a living organism. Break from the conventional way of working which each part is made by a specialist, the structure is constructed considering the function and the landscape from the very first step of the design process. To this extent, he also studies the landscaping and facilities.

‘Completing’ can never be obtained from Lee, especially who believes that architecture is his mission. Every moment is a process of chasing the land of utopia. This might perceive as a radical view, but in the near future, he might surprise us with a minimalistic design: a posture that is not afraid of unpredictable perspectives and novelties. That is why we look forward to his future plan.